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와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

혁명사상 만세!

조동신문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기관지

제352호 [주제 제25861호] 주제 106 (2017)년 12월 18일 (월요일)

당의 령도 따라 내 나라,
내 조국을 더욱 부강하게 하기
위해 힘차게 일해나가자!

경애하는 최고령도자 김정은동지께서 민족최대의 추모의 날에 즈음하여 금수산태양궁전을 찾으시였다



조선로동당 위원장이시며 조선민주주의
인민공화국 국무위원장이시며
조선인민군 최고사령관이신 우리 당과
국가, 군대의 최고령도자 김정은동지께서
민족최대의 추모의 날인 12월 17일
금수산태양궁전을 찾으시였다.

조선인민의 위대한 수령을 잊은 민족최대

의 추모의 날 태양의 성지 금수산태양궁전
은 심심한 애도의 분위기에 휩싸여있었다.
경애하는 최고령도자동지께서는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와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의 립상이 모셔져있는
홀에 들어서시였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와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의 립상앞에는
경애하는 최고령도자동지께서 보내드린
꽃바구니가 진정되어있었다.
경애하는 최고령도자동지께서는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와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의 립상을 우러러
차게 꿈이웠다.

승고한 경의를 표시하였다.

경애하는 최고령도자동지께서는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께서 생전의
모습으로 계시는 영생을 찾으시며
위대한 장군님께 송고한 경의를 표시
하시면서 삼가 인사를 드리시였다.
경애하는 최고령도자동지께서는 조선
로동당을 존엄높은 김일성-김정일주의당

으로 끌없이 강화발전시키며 우리 나라를
위대한 장군님의 생전의 네원이 꽂이는
강대한 나라, 자주, 자립, 자위의 성세로
더 굳건히 다져나가기 위하여 장군님의
혁명전사답게 더욱 억세게 싸워나갈 엄숙한
맹세를 다지시였다.

본사정지보도반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 서거 6돐에 즈음하여 절세위인들의 동상과 태양상에

인민군장병들, 각계 총

근로자들, 청소년 학생들 꽃바구니

민족의 어버이이시며 우리 당과 혁명을
위해 한 명도자 김정일동지께서는
민족최대의 추모의 날에 놀이 모신
민족장병들, 각계 총 근로자들,
청소년 학생들이 꽃바구니와
꽃다발들을 전정하였다.

만수대언 밖에 놀이 모신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와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의
동상으로는 학월한 사상과 정력

적인 평도로 우리 당과 혁명을
택 송의 한길로 이끌어 오신
인민내무부대, 평양시내 각
급 기관, 기업소, 공장, 학교 등
의 명의로 된 꽃바구니들이 전
정되었다.

꽃바구니들의 봉상앞에
는 조선로동당 위원장이시며 조선
인민군 최고사령관이신 우리
당과 국가, 군대의 최고령도자
김정은동지께서 보내신 꽃바구니
모서져있었다.

진정

고장에 높이 모신 위대한
수령님들의 동상과 태양상을 찾
는 절세위인들의 동상과 태양상에
꽃바구니들이 봉상앞에 모셔져
있다. 그는 다음과 같이 강조하였다.
김정일각께서는 타월한
선군정치로 조선을 그 어떤
형도자 김정일동지는 영원히
우리와 함께 계실다는 억척불변
의 신념을 심장깊이 새기고
경애하는 최고령도자
김정은동지의 두리에 한마음한
뜻으로, 꽃에 봉제 조선로동당
정군님의 동상과 태양상에
조선인민군, 조선인민내무부
부대, 기관, 기업소 등의 명
의로 된 꽃바구니들이 진정
되었다.

【조선중앙통신】

진정한 인민의 령도자, 자애로운 어버이

여러 나라 인사들 담화 발표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의
서거 6돐에 즈음하여 인도네시
아와 조선사이의 친선관계발전
과 세계의 평화와 안전에도
불법의 공헌을 하시였다.

김정운각하의 천명한 명도임
답화를 발표하였다.
그는 다음과 같이 강조하였다.
김정일각께서는 타월한
선군정치로 조선을 그 어떤
형도자 김정일동지는 영원히
우리와 함께 계실다는 억척불변
의 신념을 심장깊이 새기고
경애하는 최고령도자
김정은동지의 두리에 한마음한
뜻으로, 꽃에 봉제 조선로동당
정군님의 동상과 태양상에
조선인민군, 조선인민내무부
부대, 기관, 기업소 등의 명
의로 된 꽃바구니들이 진정
되었다.

그이는 인민의 행복을 위하여
자신의 모든 것을 다 바치신
김정일각께서는 11월 27일 담화를 발
표하였다.

그는 다음과 같이 언급하였다.
김정일령도자께서 조선인민
군을 조선이 당당한 혁강국으
로 이끌고자 헌신한 것은 그대로
인민에 대한 사랑과 믿음의
세로 가슴 불태웠다.
김정일각께서는 인도네시

하여 조선에서는 인민의 리익이
모든 조선과 정책의 기준으로
철저히 고수되었다.

동유럽나라들에서 사회주의
가 좌절되고 제국주의 핵세력
의 반사회주의 공세가 조선에 접
종되면 시기에도 조선에서는 무
상치료제, 무료교육제와 같은
인민적시책들이 번발없이 실시
되었다.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의
서거 6돐에 즈음하여 민주공고
공산당 총비서 보스와 이세풀메
세우고야말것이다.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의
서거 6돐에 즈음하여 민주공고
공산당 총비서 보스와 이세풀메
세우고야말것이다.
그는 다음과 같이 언급하였다.
김정일령도자께서 조선인민
군을 이끄신 수십성상은 그대로
인민에 대한 사랑과 믿음의
세로 가슴 불태웠다.
김정일령도자께서는 영원히
우리와 함께 계신다.

【조선중앙통신】

위대한령도자 김정일동지 서거 6돐에 즈음하여 국가, 군대의 책임일군들 금수산태양궁전을 찾아 숭고한 경의 표시

위대한령도자 김정일동지 서거 6돐에 즈음하여 국가, 군대의 책임일군들이 17일 금수산태양궁전을 찾아 숭고한 경의를 표시하였다.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정치국 상무위원회 위원이며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위원장인 김정일동지,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정치국 상무위원회 위원이며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국무위원회 부위원장이며 내각총리인 박봉수동지를 비롯한 국가, 군대의 책임일군들과 우상 위원장, 경양시안의 당종중지도기관원들, 무력, 성, 중앙기관 일군들이 참가하였다.

우리당과 인민의 영원한 수령이신 위대한령도자 김정일동지께서 영생의 모습으로 계시는 주체의 최고성지 금수산태양궁전은 승업한 분위기에 휩싸여 있었다.

위대한령도자 김정일동지 서거 6돐에 즈음하여 국가, 군대의 책임일군들은 위대한령도자 김정일동지의 흠험상에는 우리당과 국가, 군대의 최고령도자 김정일동지의 존함을 모신 꽃바구니와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조선로동당 중앙군사위원회,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국무위원회의 공동명의로 된 꽃바구니가 놓여 있었다.

위대한령도자 김정일동지의 흠험상에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내각, 조선민주군의 공동명의로 된 꽃바구니가 전정되었다.

국가, 군대의 책임일군들은 위대한령도자 김정일동지께서 영생의 모습으로 계시는 금수산태양궁전을 찾아 인민군장병들에 각계 층 근로자들이 숭고한 경의를 표시하였다.

땅에는 당기와 공화국기들이 세워져 있으며 조선인민군, 해군, 항공 및 금수산태양궁전을 찾아 숭고한 경의를 표시하였다.

위대한령도자 김정일동지께서 생전의 모습으로 계시는 영생홀에서 국가, 군대의 책임일군들은 한평생 조국과 인민을 위해 불懈주야로 활약, 노동적 위군명에 위령대가 경렬해 있었다.

위대한령도자 김정일동지의 흠험상에는 우리당과 국가, 군대, 만년도대를 마련하여 주신 위대한령도자 김정일동지의 고귀한 혁명생애와 세기에 빛날 업적을 가슴뜨겁게 끌어오며 가장 경건한 마음으로 삶ا 인사를 드리었다.

국가, 군대의 책임일군들은 위대한령도자 김정일동지의 흠험상에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내각, 조선민주군의 공동명의로 된 꽃바구니가 전정되었다.

국가, 군대의 책임일군들은 위대한령도자 김정일동지께서 영생의 모습으로 계시는 금수산태양궁전을 찾아 인민군장병들에 각계 층 근로자들이 숭고한 경의를 표시하였다.

위대한령도자 김정일동지께서 생전의 모습으로 계시는 영생홀에서 국가, 군대의 책임일군들은 한평생 조국과 인민을 위해 불懈주야로 활약, 노동적 위군명에 위령대가 경렬해 있다.

위대한령도자 김정일동지께서 생전의 모습으로 계시는 영생홀에서 국가, 군대, 만년도대를 마련하여 주신 위대한령도자 김정일동지의 고귀한 혁명생애와 세기에 빛날 업적을 가슴뜨겁게 끌어오며 가장 경건한 마음으로 삶ا 인사를 드리었다.

국가, 군대의 책임일군들은 위대한령도자 김정일동지의 흠험상에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내각, 조선민주군의 공동명의로 된 꽃바구니가 전정되었다.

국가, 군대의 책임일군들은 위대한령도자 김정일동지께서 영생의 모습으로 계시는 금수산태양궁전을 찾아 인민군장병들에 각계 층 근로자들이 숭고한 경의를 표시하였다.

우리조국과 민족의 최고령도자이신 경애하는 김정은원수님께 삼가드립니다

백두산의 기상과 담력을 안으시고 불면불휴의 힘으로 위대한장군님의 애국념원, 강국 님원을 친환경 철원로 물미우시어 우리조국을 그 어먼 원주도 범계 못하는 최강의 핵강국, 로제트강국으로 일미세우심으로써 민족민족의 부강번영을 억척같이 담보해주신 경애하는 원수님의 업적은 민족사에 금문자로 찬란히 아로새겨져 영원히 빛을 뿐될 것입니다.

위대한장군님에 대한 한없는 그리움에 넘쳐있는 재중조선인민들의 가슴가슴은 통서고금 그 어느 민족도 누르보지 못한 수령목, 장군복을 대를 이어 누려가는 민족의 행운을 언제나 심장깊이 간직하고 재중조선인운동의 새로운 전성기를 반드시 절처놓을 굳은 의지에 넘쳐있습니다.

우리들은 김정일에 국주를 실천활동에 펼쳐趋于 구현하여 조국의 사회주의 강국건설에 특색있게 이바지하며 광범한 재중조선인들을 조직의 두리에 굽어세워 재중조선인총련합회를 애국의 대으로 더욱 풀마루 꾸려나가겠습니다.

그리고 두철한 민족자주와 민족대단결의 가치높이 미일제국주의자들과 남조선피판들의 날로 로파화되는 북침핵전쟁도발책동을 저지파주시기고 남조선에 대한 미국의 식민지지배와 강점을 끌어내리기 위한 대중적인 반미반한, 평화수호로령의 불길을 더욱 세차게 지펴나가겠습니다.

또한 위대한장군님을 따르고 달출던 한마음으로 경애하는 김정은원수님을 민족의 태양, 조국통일의 구성으로 높이 만들어 모시며 대원수님의 간간한 유훈을 저지 경애하는 원수님의 사회주의 강국건설도를 충직하게 달드는 침된 애국조적이 되겠습니다.

위대한장군님께서 계시여 우리들은 산실고 불설은 이 있는 자식보다 멀리 있는 자식을 더 생각하는 철원의 실정으로 언제나 재중조선공민들의 사업과 생활을 따뜻이 보살펴주시었으며 유풍 해야 할 일을 한 통로들의 자그마한 소행도 높이 평가해주시고 내세워주시었습니다.

위대한장군님께서 계시여 우리들은 산실고 불설은 이 있는 자식보다 멀리 있는 자식을 더 생각하는 철원의 실정으로 언제나 재중조선공민들의 사업과 생활을 따뜻이 보살펴주시었으며 유풍 해야 할 일을 한 통로들의 자그마한 소행도 높이 평가해주시고 내세워주시었습니다.

위대한장군님께서 계시여 우리들은 산실고 불설은 이 있는 자식보다 멀리 있는 자식을 더 생각하는 철원의 실정으로 언제나 재중조선공민들의 사업과 생활을 따뜻이 보살펴주시었으며 유풍 해야 할 일을 한 통로들의 자그마한 소행도 높이 평가해주시고 내세워주시었습니다.

위대한장군님께서 계시여 우리들은 산실고 불설은 이 있는 자식보다 멀리 있는 자식을 더 생각하는 철원의 실정으로 언제나 재중조선공민들의 사업과 생활을 따뜻이 보살펴주시었으며 유풍 해야 할 일을 한 통로들의 자그마한 소행도 높이 평가해주시고 내세워주시었습니다.

위대한장군님께서 계시여 우리들은 산실고 불설은 이 있는 자식보다 멀리 있는 자식을 더 생각하는 철원의 실정으로 언제나 재중조선공민들의 사업과 생활을 따뜻이 보살펴주시었으며 유풍 해야 할 일을 한 통로들의 자그마한 소행도 높이 평가해주시고 내세워주시었습니다.

위대한장군님께서 계시여 우리들은 산실고 불설은 이 있는 자식보다 멀리 있는 자식을 더 생각하는 철원의 실정으로 언제나 재중조선공민들의 사업과 생활을 따뜻이 보살펴주시었으며 유풍 해야 할 일을 한 통로들의 자그마한 소행도 높이 평가해주시고 내세워주시었습니다.

위대한장군님께서 계시여 우리들은 산실고 불설은 이 있는 자식보다 멀리 있는 자식을 더 생각하는 철원의 실정으로 언제나 재중조선공민들의 사업과 생활을 따뜻이 보살펴주시었으며 유풍 해야 할 일을 한 통로들의 자그마한 소행도 높이 평가해주시고 내세워주시었습니다.

위대한장군님께서 계시여 우리들은 산실고 불설은 이 있는 자식보다 멀리 있는 자식을 더 생각하는 철원의 실정으로 언제나 재중조선공민들의 사업과 생활을 따뜻이 보살펴주시었으며 유풍 해야 할 일을 한 통로들의 자그마한 소행도 높이 평가해주시고 내세워주시었습니다.

위대한장군님께서 계시여 우리들은 산실고 불설은 이 있는 자식보다 멀리 있는 자식을 더 생각하는 철원의 실정으로 언제나 재중조선공민들의 사업과 생활을 따뜻이 보살펴주시었으며 유풍 해야 할 일을 한 통로들의 자그마한 소행도 높이 평가해주시고 내세워주시었습니다.

위대한장군님께서 계시여 우리들은 산실고 불설은 이 있는 자식보다 멀리 있는 자식을 더 생각하는 철원의 실정으로 언제나 재중조선공민들의 사업과 생활을 따뜻이 보살펴주시었으며 유풍 해야 할 일을 한 통로들의 자그마한 소행도 높이 평가해주시고 내세워주시었습니다.

위대한장군님께서 계시여 우리들은 산실고 불설은 이 있는 자식보다 멀리 있는 자식을 더 생각하는 철원의 실정으로 언제나 재중조선공민들의 사업과 생활을 따뜻이 보살펴주시었으며 유풍 해야 할 일을 한 통로들의 자그마한 소행도 높이 평가해주시고 내세워주시었습니다.

위대한장군님께서 계시여 우리들은 산실고 불설은 이 있는 자식보다 멀리 있는 자식을 더 생각하는 철원의 실정으로 언제나 재중조선공민들의 사업과 생활을 따뜻이 보살펴주시었으며 유풍 해야 할 일을 한 통로들의 자그마한 소행도 높이 평가해주시고 내세워주시었습니다.

위대한장군님께서 계시여 우리들은 산실고 불설은 이 있는 자식보다 멀리 있는 자식을 더 생각하는 철원의 실정으로 언제나 재중조선공민들의 사업과 생활을 따뜻이 보살펴주시었으며 유풍 해야 할 일을 한 통로들의 자그마한 소행도 높이 평가해주시고 내세워주시었습니다.

위대한장군님께서 계시여 우리들은 산실고 불설은 이 있는 자식보다 멀리 있는 자식을 더 생각하는 철원의 실정으로 언제나 재중조선공민들의 사업과 생활을 따뜻이 보살펴주시었으며 유풍 해야 할 일을 한 통로들의 자그마한 소행도 높이 평가해주시고 내세워주시었습니다.

위대한장군님께서 계시여 우리들은 산실고 불설은 이 있는 자식보다 멀리 있는 자식을 더 생각하는 철원의 실정으로 언제나 재중조선공민들의 사업과 생활을 따뜻이 보살펴주시었으며 유풍 해야 할 일을 한 통로들의 자그마한 소행도 높이 평가해주시고 내세워주시었습니다.

위대한장군님께서 계시여 우리들은 산실고 불설은 이 있는 자식보다 멀리 있는 자식을 더 생각하는 철원의 실정으로 언제나 재중조선공민들의 사업과 생활을 따뜻이 보살펴주시었으며 유풍 해야 할 일을 한 통로들의 자그마한 소행도 높이 평가해주시고 내세워주시었습니다.

위대한장군님께서 계시여 우리들은 산실고 불설은 이 있는 자식보다 멀리 있는 자식을 더 생각하는 철원의 실정으로 언제나 재중조선공민들의 사업과 생활을 따뜻이 보살펴주시었으며 유풍 해야 할 일을 한 통로들의 자그마한 소행도 높이 평가해주시고 내세워주시었습니다.

위대한장군님께서 계시여 우리들은 산실고 불설은 이 있는 자식보다 멀리 있는 자식을 더 생각하는 철원의 실정으로 언제나 재중조선공민들의 사업과 생활을 따뜻이 보살펴주시었으며 유풍 해야 할 일을 한 통로들의 자그마한 소행도 높이 평가해주시고 내세워주시었습니다.

위대한장군님께서 계시여 우리들은 산실고 불설은 이 있는 자식보다 멀리 있는 자식을 더 생각하는 철원의 실정으로 언제나 재중조선공민들의 사업과 생활을 따뜻이 보살펴주시었으며 유풍 해야 할 일을 한 통로들의 자그마한 소행도 높이 평가해주시고 내세워주시었습니다.

위대한장군님께서 계시여 우리들은 산실고 불설은 이 있는 자식보다 멀리 있는 자식을 더 생각하는 철원의 실정으로 언제나 재중조선공민들의 사업과 생활을 따뜻이 보살펴주시었으며 유풍 해야 할 일을 한 통로들의 자그마한 소행도 높이 평가해주시고 내세워주시었습니다.

위대한장군님께서 계시여 우리들은 산실고 불설은 이 있는 자식보다 멀리 있는 자식을 더 생각하는 철원의 실정으로 언제나 재중조선공민들의 사업과 생활을 따뜻이 보살펴주시었으며 유풍 해야 할 일을 한 통로들의 자그마한 소행도 높이 평가해주시고 내세워주시었습니다.

위대한장군님께서 계시여 우리들은 산실고 불설은 이 있는 자식보다 멀리 있는 자식을 더 생각하는 철원의 실정으로 언제나 재중조선공민들의 사업과 생활을 따뜻이 보살펴주시었으며 유풍 해야 할 일을 한 통로들의 자그마한 소행도 높이 평가해주시고 내세워주시었습니다.

위대한장군님께서 계시여 우리들은 산실고 불설은 이 있는 자식보다 멀리 있는 자식을 더 생각하는 철원의 실정으로 언제나 재중조선공민들의 사업과 생활을 따뜻이 보살펴주시었으며 유풍 해야 할 일을 한 통로들의 자그마한 소행도 높이 평가해주시고 내세워주시었습니다.

위대한장군님께서 계시여 우리들은 산실고 불설은 이 있는 자식보다 멀리 있는 자식을 더 생각하는 철원의 실정으로 언제나 재중조선공민들의 사업과 생활을 따뜻이 보살펴주시었으며 유풍 해야 할 일을 한 통로들의 자그마한 소행도 높이 평가해주시고 내세워주시었습니다.

위대한장군님께서 계시여 우리들은 산실고 불설은 이 있는 자식보다 멀리 있는 자식을 더 생각하는 철원의 실정으로 언제나 재중조선공민들의 사업과 생활을 따뜻이 보살펴주시었으며 유풍 해야 할 일을 한 통로들의 자그마한 소행도 높이 평가해주시고 내세워주시었습니다.

위대한장군님께서 계시여 우리들은 산실고 불설은 이 있는 자식보다 멀리 있는 자식을 더 생각하는 철원의 실정으로 언제나 재중조선공민들의 사업과 생활을 따뜻이 보살펴주시었으며 유풍 해야 할 일을 한 통로들의 자그마한 소행도 높이 평가해주시고 내세워주시었습니다.

위대한장군님께서 계시여 우리들은 산실고 불설은 이 있는 자식보다 멀리 있는 자식을 더 생각하는 철원의 실정으로 언제나 재중조선공민들의 사업과 생활을 따뜻이 보살펴주시었으며 유풍 해야 할 일을 한 통로들의 자그마한 소행도 높이 평가해주시고 내세워주시었습니다.

위대한장군님께서 계시여 우리들은 산실고 불설은 이 있는 자식보다 멀리 있는 자식을 더 생각하는 철원의 실정으로 언제나 재중조선공민들의 사업과 생활을 따뜻이 보살펴주시었으며 유풍 해야 할 일을 한 통로들의 자그마한 소행도 높이 평가해주시고 내세워주시었습니다.

위대한장군님께서 계시여 우리들은 산실고 불설은 이 있는 자식보다 멀리 있는 자식을 더 생각하는 철원의 실정으로 언제나 재중조선공민들의 사업과 생활을 따뜻이 보살펴주시었으며 유풍 해야 할 일을 한 통로들의 자그마한 소행도 높이 평가해주시고 내세워주시었습니다.

위대한장군님께서 계시여 우리들은 산실고 불설은 이 있는 자식보다 멀리 있는 자식을 더 생각하는 철원의 실정으로 언제나 재중조선공민들의 사업과 생활을 따뜻이 보살펴주시었으며 유풍 해야 할 일을 한 통로들의 자그마한 소행도 높이 평가해주시고 내세워주시었습니다.

위대한장군님께서 계시여 우리들은 산실고 불설은 이 있는 자식보다 멀리 있는 자식을 더 생각하는 철원의 실정으로 언제나 재중조선공민들의 사업과 생활을 따뜻이 보살펴주시었으며 유풍 해야 할 일을 한 통로들의 자그마한 소행도 높이 평가해주시고 내세워주시었습니다.

위대한장군님께서 계시여 우리들은 산실고 불설은 이 있는 자식보다 멀리 있는 자식을 더 생각하는 철원의 실정으로 언제나 재중조선공민들의 사업과 생활을 따뜻이 보살펴주시었으며 유풍 해야 할 일을 한 통로들의 자그마한 소행도 높이 평가해주시고 내세워주시었습니다.

위대한장군님께서 계시여 우리들은 산실고 불설은 이 있는 자식보다 멀리 있는 자식을 더 생각하는 철원의 실정으로 언제나 재중조선공민들의 사업과 생활을 따뜻이 보살펴주시었으며 유풍 해야 할 일을 한 통로들의 자그마한 소행도 높이 평가해주시고 내세워주시었습니다.

위대한장군님께서 계시여 우리들은 산실고 불설은 이 있는 자식보다 멀리 있는 자식을 더 생각하는 철원의 실정으로 언제나 재중조선공민들의 사업과 생활을 따뜻이 보살펴주시었으며 유풍 해야 할 일을 한 통로들의 자그마한 소행도 높이 평가해주시고 내세워주시었습니다.

위대한장군님께서 계시여 우리들은 산실고 불설은 이 있는 자식보다 멀리 있는 자식을 더 생각하는 철원의 실정으로 언제나 재중조선공민들의 사업과 생활을 따뜻이 보살펴주시었으며 유풍 해야 할 일을 한 통로들의 자그마한 소행도 높이 평가해주시고 내세워주시었습니다.

위대한장군님께서 계시여 우리들은 산실고 불설은 이 있는 자식보다 멀리 있는 자식을 더 생각하는 철원의 실정으로 언제나 재중조선공민들의 사업과 생활을 따뜻이 보살펴주시었으며 유풍 해야 할 일을 한 통로들의 자그마한 소행도 높이 평가해주시고 내세워주시었습니다.

위대한장군님께서 계시여 우리들은 산실고 불설은 이 있는 자식보다 멀리 있는 자식을 더 생각하는 철원의 실정으로 언제나 재중조선공민들의 사업과 생활을 따뜻이 보살펴주시었으며 유풍 해야 할 일을 한 통로들의 자그마한 소행도 높이 평가해주시고 내세워주시었습니다.

위대한장군님께서 계시여 우리들은 산실고 불설은 이 있는 자식보다 멀리 있는 자식을 더 생각하는 철원의 실정으로 언제나 재중조선공민들의 사업과 생활을 따뜻이 보살펴주시었으며 유풍 해야 할 일을 한 통로들의 자그마한 소행도 높이 평가해주시고 내세워주시었습니다.

위대한장군님께서 계시여 우리들은 산실고 불설은 이 있는

위대한 태양의 축복 속에 주체조선은 무궁번영 하리라 절절한 그리움과 신념의 맹세 굽이치는 금수산태양궁전광장에서

온 나라 강산에 우리 당과 인민의 영원한 수령 이신 위대한 명도자 김정일동지에 대한 절절한 그리움과 다함없는 경모의 정이 대하가 되어 세하게 굽이치고 있다.

위대한 빙도자 김정일동지의 서거 6돐에 즈음하여 12월 17일 수많은 인민군군인들과 근로자들, 청소년 학생들이 주체의 최고성지 금수산 태양궁전광장을 찾았다.

남씨는 품시 추웠으나 광장은 그 끼울의 열풍으로 새하게 달아올랐다. 그 열풍을 한껏 고조시키듯 구름 한점 없는 하늘에서는 해빛이 쓰아져내리고 있었다.

금빛 환란한 대원수별이 빛나는 용장한 둑대 문을 지나 사람들이 너도나도 앞을 타우며 광장을 들어섰다. 그 물결에 이끌려 광장에 들어서는 우리의 눈앞에 위대한 수령님들의 태양상이 승용히 안겨왔다. 사랑하는 천민선사, 제자들을 만져았으니며 온 세상이 환하도록 밝게 웃으시는 위대한 수령님들의 태양상을 우리 데 사람들은 삼가 경건한 마음으로 인사를 드리었다.

경애하는 희고명도자 김정은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말씀하시였다.

『금수산태양궁전으로 환한 사람들의 그칠줄 모르는 행렬. 그속에는 조국의 방선을 긍정될며 서로 지켜가고 있는 인민군군인들도 있었고 파자들과 교원들, 대학생들과 중학생들도 있었으며 아버지, 어머니의 손목을 잡은 어린이들도 있었다.

어서 우리 장군님께 가자. 어버이장군님께서 우리를 기다리신다!』

금수산태양궁전광장을 화려히 팔걸음을 다그치는 사람들의 얼굴마다에는 열화같은 그리움이 차넘치고 있다.

고검한 도덕의리와 충정으로 자나깨나 심장을 불태워온 우리 군대와



인민이다. 산같이 쌓아온 그리움을 헤치며 태양의 성지에 들어서는 그들의 모습을 바라보는 우리의 가슴도 불편이미마땅 달아올랐다.

금수산태양궁전광장에서 우리와 만난 대성구역 미산1동에서 사

리현진동우는 흥분된 목소리로 이렇게 말하였다.

『아버지장군님께서는 오늘도 초소와 일터들을 찾아주실 때처럼, 병사들과 인민들을 만나실 때처럼 태양의 미소를 깊고 계십니다. 그 원한 미소가 오늘따라 더욱 가슴에 파고 들어 눈물이 앞을 가리웁니다.』

이것이 어찌 그의 심정만이라. 사

람들도 모두가 자애로운 어버이의 태양

의 미소에 빠져있는 인민에 대한 팔

없는 사랑의 한생, 불같은 애국현신의

한생을 더듬으며 적성을 금치 못

하고 있었다.

고집한 피눈물의 바다에서 물부린

6년간

그리움을 바라보는 우리

장군님이

장군님께서는 그때에도

우리 인민들에게 태양상

을 풍채롭게 드러내고 있었던 것이다.

사람들이여, 물어보자.

진정 이 세상 그 어디에 우리

장군님처럼 조국과 인민을 위해 헌생

을 꽂고 바치시며 위대한 생애의

마지막날까지 하루하루를 뼈날, 친날

치며 어버이장군님을 목에 부드고

또 무른 우리 군대와 인민이다. 해빛

같이 환한 미소를 지으신 우리 장군님의 태양상을 우리에게 온 나라 천만

군민은 얼마나 뜨거운 눈물을 쏟았

던가.

사랑하는 인민들에게 세상만복을

안겨주시려 새월의 높비를 다 맞으

시고 고생이란 고생을 다 겪으신

아버지장군님,

위대한 생애의 마지막 시기에도

불편한 몸으로 조국의 부강번영과

인민들의 행복을 위해 한생을

초불처럼 헤우신 위대한 혁명가,

위대한 빙도자, 위대한 인간이시였다.

우리 장군님께서 지으신 태양의

미소에 그이의 뿔같은 환생, 가장

현신적이며 가장 희생적인 위대한

혁명생애가 다 아버지이며 금수산태양

광장하시는데서 생의 희열과 혁명하

며 걸음을 떼지 못하는 한 인류를 만

났다. 그는 조선인민군 군관인의

인생관이 비껴있었는 것이다.

조국과 인민을 위한 일에서 막을

줄으시고 혁명의 뿔과 풍파우시는

네 서 삶의 보람을 찾으신 우리

장군님께서는 그때에도

우리 인민들에게 태양상

을 풍채롭게 드러내고 있었던 것이다.

우리 장군님께서는 그때에도

우리 군대와 인민에게

천하제일명장을 모시여 최후승리는 확정적이다

주체조선의 강대한 힘으로 지구를 통제로 위 훈들고 있는 적동적인 시기에 경애하는 최고령도자 김정은 동지께서 혁명의 성산 백두산에 오르신 소식은 우리 군대와 인민에게 최후승리에 대한 신심과 학관을 더욱 뜻밖해 주고 있다.

백두산은 위대한 수령님들의 봉법의 혁명행 애가 깃들어 있는 풍물봉과는 조선의 정신적 기둥이며 백일봉과는 사상적립의 부려이다. 주체조선의 백전백승의 의지와 영웅적 배심, 위대한 힘은 바로 백두산에 그 시원을 두고 있다.

경애하는 최고령도자동지께서 높보라 치는 1·2월에 백두산에 오르시여 뜻깊은 자욱을 세기신 것은 우리 조국을 세계가 우러러보는 천재재일 강으로 더 높아 떠올리실 원대한 구상을 안으시고 백두산의 장엄한 기상으로 행성의 어지러운 팽창을 쇄갈기며 최후승리의 력력을 기이며 안아오시려는 선출정령의 확고한 의지를 꾀시한 럭사적인 사변이다.

경애하는 최고령도자 차김정은 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말씀하시였다.

『주체의 기치를 높이고 혁명의 최후승리를 이룩하며 삼천리강과 육로에 온 세계가 우러러보는 천재재일 강국, 인민의 력원을 일컬어세우려는 것은 우리 당의 확고한 결심이며 일지입니다.』

경애하는 최고령도자 김정은은 통지는 백두의 신념과 의지, 천재적인 예지와 과학적 통찰력, 불멸봉우의 애국신으로 우리 공화국을 그 어떤 원두도 빙그름할 수 있는 주체의 백강국, 세계적인 군사대국으로 일떠세우신 천재의 애국가, 만고의 영광이시다.

강위역할 공방력을 가지는 것은 우리 인민의 숙망이었다. 더욱이 미제의 대조선제 대장적 힘은 우려와 공각책 등으로 날로 악랄해지고 있는 양

혹한 정세는 우리로 하여금 조국과 인민, 혁명을 수호하고 조선반도와 통북아시아지역의 평화와 안정을 믿음을 적하게 담보하기 위해 자위적 국방력과 최상의 수준에 올려세울 것을 절박하게 요구하였다.

위대한 수령님들의 송고한 애국령은 경애하는 최고령도자동지께서 천재재일 강국의 정신과 풍물봉과는 사상적립의 부려이다. 주체조선의 백전백승의 의지와 영웅적 배심, 위대한 힘은 바로 백두산에 그 시원을 두고 있다.

경애하는 최고령도자동지께서는 브레드캐프의 길이 풍물봉을 경애하는 최고령도자동지께서는 경제건설과 군사강국으로 천재재일 강국으로 더 높아 떠올리실 원대한 구상을 안으시고 백두산의 장엄한 기상으로 행성의 어지러운 팽창을 쇄갈기며 최후승리의 력력을 기이며 안아오시려는 선출정령의 확고한 의지를 꾀시한 럭사적인 사변이다.

지금 미국과 그 주구들은 경애하는 최고령도자동지께서 백두산에 오르신데 대해 축각을 끈우세이며 불안감을 감추지 못하고 있다. 남조선언론들은 『김정은 위원장 백두산에 등장, 혁무역 원성 회고』, 『주요 고비때마다 백두산 찾은 김정은 위원장』, 『중국에 걸친 『교고』 등으로 널리 보도하고 있다.

침자는 진간하는 백두의 력성이 언제 더져나올지 불과히 허둥지둥히 커다란 불안과 공포에 떠밀고 있는 원수들의 가련한 물들은 우리 최후승리가 멀지 않았다는 것을 한층으로 짚었다.

오늘 미국을 비롯한 적대세력들이 우리 국가의 자주권과 생존권, 발전권을 완전히 말살하기 위해 가장 야만한 정치행동에 매달리는 한편 방대한 핵전략자산들을 통용하여 군사적 도발로 무차비하게 짓부시며 즉각적인 대응을 펼쳐온 것이다. 그들은 원수에게는 한층 더 높아진 혁명령도자와 함께 한층 더 높아진 혁명령도자로 기대하고 있다.

남조선 각계층이 지금의 정보원은 그 교육성과 철련성에 있어 『3·1 18혁명』, 『7·4 혁명』, 『2·8의 기적적승리』, 『1·1 월 29일의 위대한 대승리』는 경애하는 최고령도자동지의 천재적인 결단, 특출한 정치행동, 탁월한 명도가 인아온 민족사대경사, 특히 사변들이이다. 우리 공화국이 남들이 수십년을 두고도 이 투지 못할 군사적 저력을 놀라워하고 있다. 그들은 멀당에 직면한 가련한 활동을 주시였다.

물소총을 험하게, 경사대장, 정치위원장이 되시며 삼복의 무대위와 업동의 강우도 가립없이 깊은 밤, 이른 아침에도 군방과 학생사들로 위험천만한 화선에 함께 계시며 긴장한 전투의 일정과 함께 백성을 안아오는 것은 조국과 민족을 끌어안으신 영적 중의 영적이다.

백두산의 기상을 안으시고 군함없는 풍랑정신으로 화를 블록으로, 역경을 순경으로 전환시키며 백승을 안아오는 것은 경애하는 최고령도자동지의 영위한 혁명령도당식이다.

지금 미국과 그 주구들은 경애하는 최고령도자동지께서 백두산에 오르신데 대해 축각을 끈우세이며 불안감을 감추지 못하고 있다. 남조선언론들은 『김정은 위원장 백두산에 등장, 혁무역 원성 회고』, 『주요 고비때마다 백두산 찾은 김정은 위원장』, 『중국에 걸친 『교고』 등으로 널리 보도하고 있다.

침자는 진간하는 백두의 력성이 언제 더져나올지 불과히 허둥지둥히 커다란 불안과 공포에 떠밀고 있는 원수들의 가련한 물들은 우리 최후승리가 멀지 않았다는 것을 한층으로 짚었다.

오늘 미국을 비롯한 적대세력들이 우리 국가의 자주권과 생존권, 발전권을 완전히 말살하기 위해 가장 야만한 정치행동에 매달리는 한편 방대한 핵전략자산들을 통용하여 군사적 도발로 무차비하게 짓부시며 즉각적인 대응을 펼쳐온 것이다. 그들은 원수에게는 한층 더 높아진 혁명령도자와 함께 한층 더 높아진 혁명령도자로 기대하고 있다.

남조선 각계층이 지금의 정보원은 그 교육성과 철련성에 있어 『3·1 18혁명』, 『7·4 혁명』, 『2·8의 기적적승리』, 『1·1 월 29일의 위대한 대승리』는 경애하는 최고령도자동지의 천재적인 결단, 특출한 정치행동, 탁월한 명도가 인아온 민족사대경사, 특히 사변들이이다. 우리 공화국이 남들이 수십년을 두고도 이 투지 못할 군사적 저력을 놀라워하고 있다.

남조선 각계층이 지금의 정보원은 그 교육성과 철련성에 있어 『3·1 18혁명』, 『7·4 혁명』, 『2·8의 기적적승리』, 『1·1 월 29일의 위대한 대승리』는 경애하는 최고령도자동지의 천재적인 결단, 특출한 정치행동, 탁월한 명도가 인아온 민족사대경사, 특히 사변들이이다. 우리 공화국이 남들이 수십년을 두고도 이 투지 못할 군사적 저력을 놀라워하고 있다.

남조선 각계층은 『정보원』과 『교고』, 『3·1 18혁명』, 『7·4 혁명』, 『2·8의 기적적승리』, 『1·1 월 29일의 위대한 대승리』는 경애하는 최고령도자동지의 천재적인 결단, 특출한 정치행동, 탁월한 명도가 인아온 민족사대경사, 특히 사변들이이다. 우리 공화국이 남들이 수십년을 두고도 이 투지 못할 군사적 저력을 놀라워하고 있다.

남조선 각계층은 『정보원』과 『교고』, 『3·1 18혁명』, 『7·4 혁명』, 『2·8의 기적적승리』, 『1·1 월 29일의 위대한 대승리』는 경애하는 최고령도자동지의 천재적인 결단, 특출한 정치행동, 탁월한 명도가 인아온 민족사대경사, 특히 사변들이이다. 우리 공화국이 남들이 수십년을 두고도 이 투지 못할 군사적 저력을 놀라워하고 있다.

남조선 각계층은 『정보원』과 『교고』, 『3·1 18혁명』, 『7·4 혁명』, 『2·8의 기적적승리』, 『1·1 월 29일의 위대한 대승리』는 경애하는 최고령도자동지의 천재적인 결단, 특출한 정치행동, 탁월한 명도가 인아온 민족사대경사, 특히 사변들이이다. 우리 공화국이 남들이 수십년을 두고도 이 투지 못할 군사적 저력을 놀라워하고 있다.

남조선 각계층은 『정보원』과 『교고』, 『3·1 18혁명』, 『7·4 혁명』, 『2·8의 기적적승리』, 『1·1 월 29일의 위대한 대승리』는 경애하는 최고령도자동지의 천재적인 결단, 특출한 정치행동, 탁월한 명도가 인아온 민족사대경사, 특히 사변들이이다. 우리 공화국이 남들이 수십년을 두고도 이 투지 못할 군사적 저력을 놀라워하고 있다.

남조선 각계층은 『정보원』과 『교고』, 『3·1 18혁명』, 『7·4 혁명』, 『2·8의 기적적승리』, 『1·1 월 29일의 위대한 대승리』는 경애하는 최고령도자동지의 천재적인 결단, 특출한 정치행동, 탁월한 명도가 인아온 민족사대경사, 특히 사변들이이다. 우리 공화국이 남들이 수십년을 두고도 이 투지 못할 군사적 저력을 놀라워하고 있다.

남조선 각계층은 『정보원』과 『교고』, 『3·1 18혁명』, 『7·4 혁명』, 『2·8의 기적적승리』, 『1·1 월 29일의 위대한 대승리』는 경애하는 최고령도자동지의 천재적인 결단, 특출한 정치행동, 탁월한 명도가 인아온 민족사대경사, 특히 사변들이이다. 우리 공화국이 남들이 수십년을 두고도 이 투지 못할 군사적 저력을 놀라워하고 있다.

남조선 각계층은 『정보원』과 『교고』, 『3·1 18혁명』, 『7·4 혁명』, 『2·8의 기적적승리』, 『1·1 월 29일의 위대한 대승리』는 경애하는 최고령도자동지의 천재적인 결단, 특출한 정치행동, 탁월한 명도가 인아온 민족사대경사, 특히 사변들이이다. 우리 공화국이 남들이 수십년을 두고도 이 투지 못할 군사적 저력을 놀라워하고 있다.

남조선 각계층은 『정보원』과 『교고』, 『3·1 18혁명』, 『7·4 혁명』, 『2·8의 기적적승리』, 『1·1 월 29일의 위대한 대승리』는 경애하는 최고령도자동지의 천재적인 결단, 특출한 정치행동, 탁월한 명도가 인아온 민족사대경사, 특히 사변들이이다. 우리 공화국이 남들이 수십년을 두고도 이 투지 못할 군사적 저력을 놀라워하고 있다.

남조선 각계층은 『정보원』과 『교고』, 『3·1 18혁명』, 『7·4 혁명』, 『2·8의 기적적승리』, 『1·1 월 29일의 위대한 대승리』는 경애하는 최고령도자동지의 천재적인 결단, 특출한 정치행동, 탁월한 명도가 인아온 민족사대경사, 특히 사변들이이다. 우리 공화국이 남들이 수십년을 두고도 이 투지 못할 군사적 저력을 놀라워하고 있다.

남조선 각계층은 『정보원』과 『교고』, 『3·1 18혁명』, 『7·4 혁명』, 『2·8의 기적적승리』, 『1·1 월 29일의 위대한 대승리』는 경애하는 최고령도자동지의 천재적인 결단, 특출한 정치행동, 탁월한 명도가 인아온 민족사대경사, 특히 사변들이이다. 우리 공화국이 남들이 수십년을 두고도 이 투지 못할 군사적 저력을 놀라워하고 있다.

남조선 각계층은 『정보원』과 『교고』, 『3·1 18혁명』, 『7·4 혁명』, 『2·8의 기적적승리』, 『1·1 월 29일의 위대한 대승리』는 경애하는 최고령도자동지의 천재적인 결단, 특출한 정치행동, 탁월한 명도가 인아온 민족사대경사, 특히 사변들이이다. 우리 공화국이 남들이 수십년을 두고도 이 투지 못할 군사적 저력을 놀라워하고 있다.

남조선 각계층은 『정보원』과 『교고』, 『3·1 18혁명』, 『7·4 혁명』, 『2·8의 기적적승리』, 『1·1 월 29일의 위대한 대승리』는 경애하는 최고령도자동지의 천재적인 결단, 특출한 정치행동, 탁월한 명도가 인아온 민족사대경사, 특히 사변들이이다. 우리 공화국이 남들이 수십년을 두고도 이 투지 못할 군사적 저력을 놀라워하고 있다.

남조선 각계층은 『정보원』과 『교고』, 『3·1 18혁명』, 『7·4 혁명』, 『2·8의 기적적승리』, 『1·1 월 29일의 위대한 대승리』는 경애하는 최고령도자동지의 천재적인 결단, 특출한 정치행동, 탁월한 명도가 인아온 민족사대경사, 특히 사변들이이다. 우리 공화국이 남들이 수십년을 두고도 이 투지 못할 군사적 저력을 놀라워하고 있다.

남조선 각계층은 『정보원』과 『교고』, 『3·1 18혁명』, 『7·4 혁명』, 『2·8의 기적적승리』, 『1·1 월 29일의 위대한 대승리』는 경애하는 최고령도자동지의 천재적인 결단, 특출한 정치행동, 탁월한 명도가 인아온 민족사대경사, 특히 사변들이이다. 우리 공화국이 남들이 수십년을 두고도 이 투지 못할 군사적 저력을 놀라워하고 있다.

남조선 각계층은 『정보원』과 『교고』, 『3·1 18혁명』, 『7·4 혁명』, 『2·8의 기적적승리』, 『1·1 월 29일의 위대한 대승리』는 경애하는 최고령도자동지의 천재적인 결단, 특출한 정치행동, 탁월한 명도가 인아온 민족사대경사, 특히 사변들이이다. 우리 공화국이 남들이 수십년을 두고도 이 투지 못할 군사적 저력을 놀라워하고 있다.

남조선 각계층은 『정보원』과 『교고』, 『3·1 18혁명』, 『7·4 혁명』, 『2·8의 기적적승리』, 『1·1 월 29일의 위대한 대승리』는 경애하는 최고령도자동지의 천재적인 결단, 특출한 정치행동, 탁월한 명도가 인아온 민족사대경사, 특히 사변들이이다. 우리 공화국이 남들이 수십년을 두고도 이 투지 못할 군사적 저력을 놀라워하고 있다.

남조선 각계층은 『정보원』과 『교고』, 『3·1 18혁명』, 『7·4 혁명』, 『2·8의 기적적승리』, 『1·1 월 29일의 위대한 대승리』는 경애하는 최고령도자동지의 천재적인 결단, 특출한 정치행동, 탁월한 명도가 인아온 민족사대경사, 특히 사변들이이다. 우리 공화국이 남들이 수십년을 두고도 이 투지 못할 군사적 저력을 놀라워하고 있다.

남조선 각계층은 『정보원』과 『교고』, 『3·1 18혁명』, 『7·4 혁명』, 『2·8의 기적적승리』, 『1·1 월 29일의 위대한 대승리』는 경애하는 최고령도자동지의 천재적인 결단, 특출한 정치행동, 탁월한 명도가 인아온 민족사대경사, 특히 사변들이이다. 우리 공화국이 남들이 수십년을 두고도 이 투지 못할 군사적 저력을 놀라워하고 있다.

남조선 각계층은 『정보원』과 『교고』, 『3·1 18혁명』, 『7·4 혁명』, 『2·8의 기적적승리』, 『1·1 월 29일의 위대한 대승리』는 경애하는 최고령도자동지의 천재적인 결단, 특출한 정치행동, 탁월한 명도가 인아온 민족사대경사, 특히 사변들이이다. 우리 공화국이 남들이 수십년을 두고도 이 투지 못할 군사적 저력을 놀라워하고 있다.

남조선 각계층은 『정보원』과 『교고』, 『3·1 18혁명』, 『7·4 혁명』, 『2·8의 기적적승리』, 『1·1 월 29일의 위대한 대승리』는 경애하는 최고령도자동지의 천재적인 결단, 특출한 정치행동, 탁월한 명도가 인아온 민족사대경사, 특히 사변들이이다. 우리 공화국이 남들이 수십년을 두고도 이 투지 못할 군사적 저력을 놀라워하고 있다.

남조선 각계층은 『정보원』과 『교고』, 『3·1 18혁명』, 『7·4 혁명』, 『2·8의 기적적승리』, 『1·1 월 29일의 위대한 대승리』는 경애하는 최고령도자동지의 천재적인 결단, 특출한 정치행동, 탁월한 명도가 인아온 민족사대경사, 특히 사변들이이다. 우리 공화국이 남들이 수십년을 두고도 이 투지 못할 군사적 저력을 놀라워하고 있다.

남조선 각계층은 『정보원』과 『교고』, 『3·1 18혁명』, 『7·4 혁명』, 『2·8의 기적적승리』, 『1·1 월 29일의 위대한 대승리』는 경애하는 최고령도자동지의 천재적인 결단, 특출한 정치행동, 탁월한 명도가 인아온 민족사대경사, 특히 사변들이이다. 우리 공화국이 남들이 수십년을 두고도 이 투지 못할 군사적 저력을 놀라워하고 있다.

남조선 각계층은 『정보원』과 『교고』, 『3·1 18혁명』, 『7·4 혁명』, 『2·8의 기적적승리』, 『1·1 월 29일의 위대한 대승리』는 경애하는 최고령도자동지의 천재적인 결단, 특출한 정치행동, 탁월한 명도가 인아온 민족사대경사, 특히 사변들이이다. 우리 공화국이 남들이 수십년을 두고도 이 투지 못할 군사적 저력을 놀라워하고 있다.

남조선 각계층은 『정보원』과 『교고』, 『3·1 18혁명』, 『7·4 혁명』, 『2·8의 기적적승리』, 『1·1 월 29일의 위대한 대승리』는 경애하는 최고령도자동지의 천재적인 결단, 특출한 정치행동, 탁월한 명도가 인아온 민족사대경사, 특히 사변들이이다. 우리 공화국이 남들이 수십년을 두고도 이 투지 못할 군사적 저력을 놀라워하고 있다.

남조선 각계층은

